선진미술관서 배운다 유럽편

⑮ 벨기에 왕립미술관

고전·현대미술의 공존…루벤스와 마그리트를 만나다

브뤼셀=정상필 EU특파원

1803년 프랑스 지배시대 개관
지상 고전·지하 현대미술관
부서 따로 둬 청소년 등 교육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Bruxelles)은 EU본부가 있어 유럽의 수도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그러나 브뤼셀의 중심은 EU본부와 의회가 있는 곳이 아니라 로열 광장(place royale)과 브뤼셀 공원(parc bruxelles)이 있는 구도심이다. 로열 광장 한 쪽에 벨기에 최대 미술관인 왕립미술관(Musees royaux des beaux-arts de Belgique)이 있다.

미술관의 정식 명칭에 복수를 뜻하는 's'가 붙은 것은 고전미술관(Musee d'Art Ancien)과 현대미술관(Musee d'Art Moderne)이 함께 있기 때문이다. 건물의 지상층을 사용하고 있는 고전미술관은 15~18세기 미술을, 지하층에 전시관을 두고 있는 현대미술관은 19~20세기 미술을 전시하고 있다. 왕립이지만 다른 유럽 나라의 최대 미술관처럼 화려한 면은 떨어진다. 그러나 중세 종교화에서 초현실주의 회화까지 알뜰하게 구색을 갖춘 모습이다.

벨기에 왕립미술관의 역사는 벨기에 영토가 프랑스 지배에 놓였던 시절인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프랑스 혁명세력이 1794년 상당한 양의 미술작품을 갖게 되고, 4년 후 이 작품들은 벨기에 궁정에 보관키로 결정된다. 나폴레옹은 1801년 이 작품들을 기초로 미술관 설립을 계획했고, 브뤼셀 미술관이라는 이름으로 1803년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1811년 브뤼셀 시의 소유가 됐으며, 네덜란드 지배시절(1815~1830)에도 꾸준히 작품 수를 늘렸다.

벨기에 독립 이후 미술관의 소유권이 브뤼셀 시에서 벨기에 정부로 넘어갔으며, 벨기에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기 시작한 것은 1845년이다. 1919년 벨기에 왕립미술관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1927년 현대미술의 컬렉션 규모가 커지면서 지금의 복수형 명칭으로 바뀌었다. 작품 수는 회화, 조각, 드로잉 등 3만여점이다.

고전미술관은 초기 플랑드르 화파로서 이 지역 르네상스 미술을 이끈 베이던(Rogier van der Weyden·1400~1464)을 비롯한 크리스튀스(Petrus Christus·1420~1472) 등 15세기 화가들을 시작으로 시대별 분류가 돼 있다. 브뤼겔(Pieter Bruegel·1525~1569), 루벤스(Pierre Paul Rubens·1577~1640), 요르단스(Jacob Jordaens·1593~1678), 안톤 반다이크(Antoon van Dyck·1599~1641) 등 벨기에 미술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화가들은 따로 전시실이 마련돼 있다.

1984년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미술관 지하 3층에서 8층까지 6개 층에 마련된 현대미술관은 시대별 테마별로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빨간 냄비에 홍합을 담은 설치미술을 선보인 벨기에 현대미술 작가 마르셀 브로타스(Marcel Broodthaers·1924~1976)를 비롯한 살바도르 달리, 프랜시스 베이컨, 파블로 피카소 등의 작품이 전시돼 있다. 벨기에의 대표적인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Rene Magritte·1898~1967)의 작품은 최근 화가의 이름을 단 '마그리트 미술관'이 개관하면서 이곳에서 볼 수 없게 됐다.

이곳은 벨기에에서 가장 큰 미술관답게 청소년 관람객들을 위해 체계적이고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EDUCATEAM)를 별도로 둬 정책을 강화한 것이 눈에 띈다. 나이와 학년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미술관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지를 제시한다. 초·중학생들에겐 미술관 내 작품들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미술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설명하면서 가이드한다.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게는 벨기에 미술사(史)를 비롯한 작품을 이해하는 법, 테마별 사조별 설명 등을 곁들인다.

더 깊이 있는 미술지식을 원하는 학생이나 성인들을 위해 마련된 '시클 마르디(Cycle Mardi)'는 매주 화요일 18세기 미술, 미술사, 현대 미술 등을 테마로 한 강의로 이뤄지며, 목요일 열리는 '시클 죄디(Cycle Jeudi)'에서는 현대 미술의 흐름을 강의한다. 이 밖에 '작품의 비밀', '색깔 발견하기', '신화와 전설', '오감', '일상 생활', '시대에 따른 여성상' 등을 주제로 한 가이드 투어가 이뤄진다.

/camus@kwangju.co.kr

벨기에 수도 브뤼셀의 구도심에 위치한 벨기에 왕립미술관 중앙홀 전경. 이곳에는 플랑드르 화파를 주도한 벨기에 출신 화가들의 작품이 소장돼 있다.

벨기에 왕립미술관 지하에 위치한 현대미술관에서 관람객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플랑드르 화파 중심…전시실 따로 둬 작품 50여점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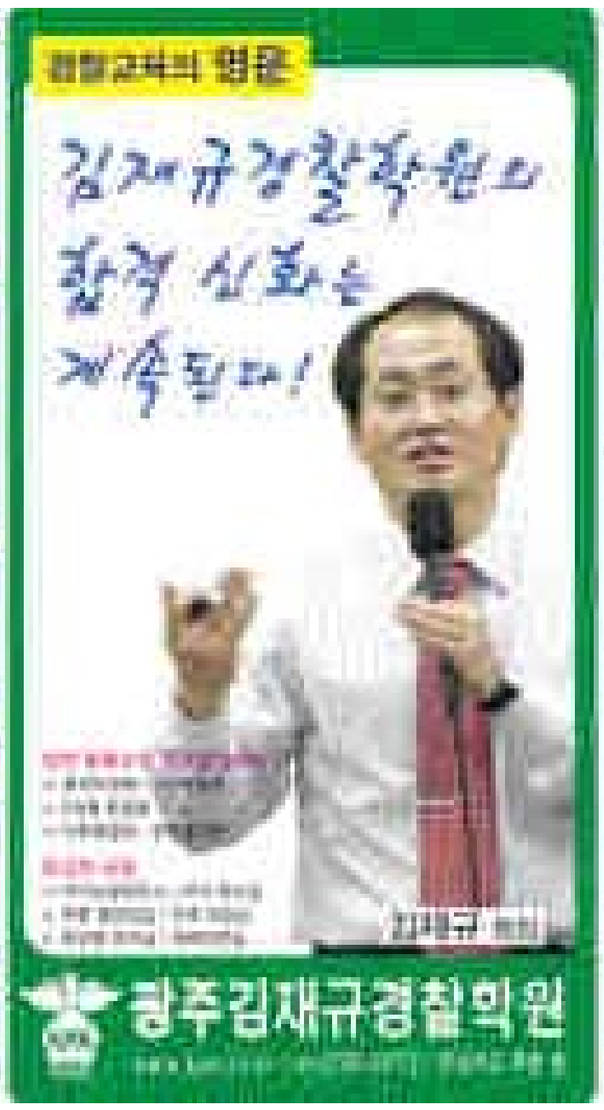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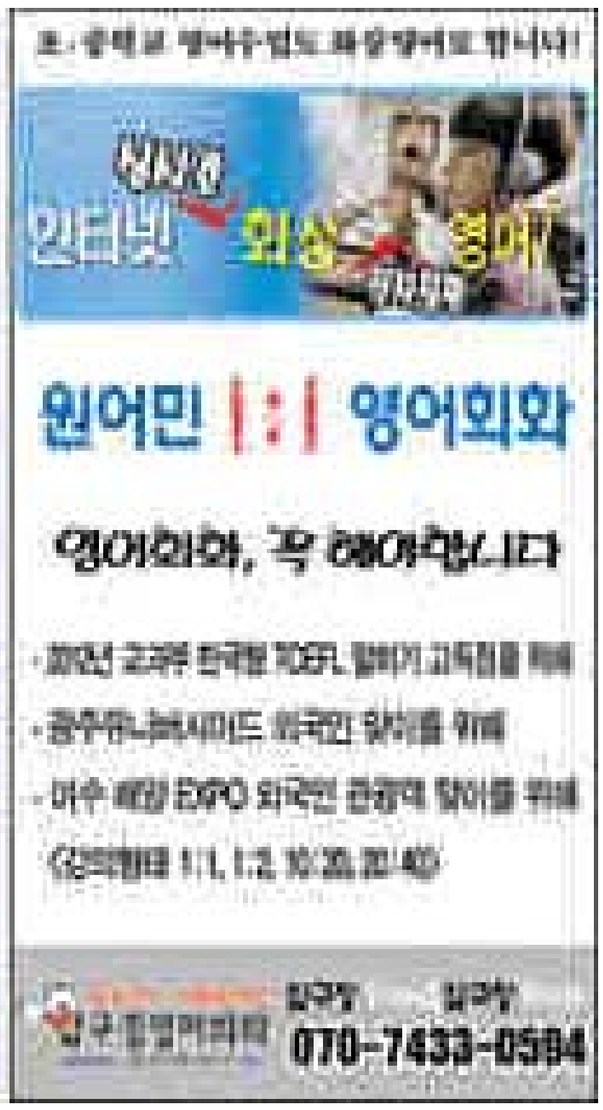
■ 벨기에 왕립미술관과 루벤스

벨기에 왕립미술관에서 가장 눈여겨 볼 화가는 플랑드르(Flandre) 화파의 중심에 있는 루벤스다. 주인공이 가장 나중에 등장하는 콘서트처럼 루벤스를 보기 위해선 미술관 내 다른 전시관을 모두 거쳐야 한다. 루벤스만을 위한 전시실이 따로 마련된 점도 벨기에 왕립미술관에서 루벤스의 위치를 말해준다. 전시된 루벤스의 작품들은 일단 크기에서부터 관람객들을 압도한다.

반 고흐에게 "엄청나게 강한 인상을 남긴" 루벤스의 기법을 눈 앞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 고흐는 그의 동생 테오에게 쓴 편지에서 "나는 그에게 반했다. 예를 들어 그가 얼굴과 손을 그리는 방식이나 붓질 등이 그렇다"고 고백했다. 상당량의 초상화를 그리기도 했지만 루벤스가 주로 그린 것은 성서의 내용을 형상화한 종교화였다. 이들 대형 그림들은 궁정이나 성당의 벽화 등으로 이용됐다.

루벤스는 화려하고 밝은 색채에 만져질 것만 같은 남성의 근육이나 여성의 풍성한 몸매를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프랑스 시인 보들레르의 시구가 이를 잘 설명해준다. "루벤스, 망각의 강, 나태의 정원/사랑을 하기엔 너무 싱싱한 살베개/생명이 흘러나와 용솟음치는 그곳/마치 하늘의 바람과 바다의 조수처럼…".(보들레르 시 '등대' 중에서)

프랑스 화가 들라크르와가 '회화의 호메로스'라고 표현한 루벤스는 아틀리에를 차려 반다이크나 요르단스, 스나이데르스(Frans Snyders) 등 플랑드르 화파의 주요 화가들과 공동작업을 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들은 루벤스의 작업을 보조했다.

벨기에 브뤼셀의 왕립미술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루벤스 전시실에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길' 등 루벤스의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지난 2002년에는 런던 소더비 경매에서 루벤스의 '유아대학살(Le Massacre des Innocents)'이 7천500만 달러에 판매됐다. 루벤스는 고흐나 피카소 등이 차지하고 있는 미술품 경매 고가 순위의 유일한 중세 화가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벨기에 왕립미술관은 루벤스 작품 50여점을 소장하고 있다.